'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친구들이 잘못을 했을 때 엄마나 선생님이 "괜찮아, 용서해줄게"하신 적 있나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따뜻하고 고마웠죠? 오늘 성경에도 누군가의용서를 받은 여인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셔서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한 여자가 향기로운 기름이 담긴 병을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감사했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저 여인은 죄인인데 왜저러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니?" 여인은 자신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예 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니까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 저도 사랑해요! 감사해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하나님 지켜 주세요	다	같	이
말 씀 봉 독	누가복음 7:36~50절	다	같	이
설 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설	显	자
말 씀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기 자녀기	· 자녀 · 부모	에게 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찬 양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 1.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나요?
- 2.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